

정보포장이론에서의 조응어 해석

정소우*†
성신여자대학교

So-Woo Chung. 2001. Anaphora Resolution in the Information Packaging Theory. *Language and Information* 5.2, 87-102. This paper deals with interpretation of pronouns in terms of Information Packaging Theory, proposed in Vallduví(1994) and Engdahl and Vallduví (1996), which depicts how discourse participants update new information, using three informational components: link, tail and focus. Based on empirical evidence, this paper argues that the information structure of an utterance is not enough for the hearer to process its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peaker's intention. It suggests that the hearer should be able to activate lexical file cards and frame file cards when necessary to designate the proper file card in which the information of the utterance should be recorded. It also proposes that, contrary to Vallduví's claim, pronouns may create a new file card. (Sungshin Women's University)

1. 머리말

현대 언어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언어현상 중의 하나는 두 명사간의 조응관계라고 할 수 있다. 조응어로 사용되는 가장 흔한 형태는 대명사로, 문맥상 앞에 나오는 표현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순행조응어(anaphor)라 하며, 문맥상 뒤에 나오는 표현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역행조응어(cataphor)라 한다. 아래 예문 (1가)의 'him'은 앞의 'your little brother'를 선행사로 취하는 순행조응어(anaphor)의 예이고, (1나)의 'it'은 뒤의 'a large snake'를 선행사로 취하는 역행조응어(cataphor)의 예이다.

- (1) 가. I am sure your little brother likes your teasing him, Allen.
나. I turned the corner and almost stepped on it. There was a large snake in the middle of the path.

조응어는 (2나)에서처럼 영형조응어로도 실현될 수 있다.

- (2) 가. A: What do you think of this?
나. B: Looks good.

위의 영형조응어 \emptyset 는 A의 발화 중 'this'를 가리킨다. 위에 소개된 조응관계에서처럼 일반적으로 조응어의 선행사를 문맥에 나타나는 언어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아래의 예문은 매우 흥미로운 예문이다.

- (3) 가. She is a mother of 9.
나. She was a woman of 40.
다. She is a student of 10.

* 이 논문은 2000년도 이세웅박사 학술진흥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도움말을 준 익명의 논평자에게 감사드린다.

† 136-742 서울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성신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화번호: 82-2-920-7113, E-mail: swchung@cc.sungshin.ac.kr

위의 세 예문은 모두 일반명사와 'of' 그리고 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통사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진 명사적 술어가 들어 있다. 하지만 그 뜻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3가)에서 '9'는 '아홉명의 자녀'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며, (3나)에서 '40'은 '마흔 살'로 해석이 된다. 그러나 (3다)의 '10'은 어떠한 해석도 부여받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문장 전체도 의미상 이상한 문장이 된다.¹ 위 (3)의 예문이 모두 통사적으로 구조가 같은 데도 불구하고 의미적으로 이같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각 예문에 있는 명사적 술어의 의미적 구조에 나타나는 조응관계의 차이점에 있다. 각 예문의 기수 뒤에 영형조응어가 있으며 그 영형조응어는 전치사 앞에 위치한 명사를 이루는 여러 의미 자질 중의 일부와 조응관계를 갖는다. 본 논문은 이 같은 조응관계를 Vallduví (1994)와 Engdahl and Vallduví (1996)의 정보포장이론내에서 설명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제가 필요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조응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담화 참여자들은 담화에 나타나는 어휘의 의미 자질에 대한 정보 등 여러 세상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보인다. 그리고, 담화 참여자들의 세상 지식 활용 과정을 정보포장이론에서 묘사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어휘 서류카드 및 세상 지식이 기록된 프레임 서류카드의 설정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조응어 해석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2. Vallduví (1994)의 정보포장구조의 세성분과 그 역할

Vallduví (1994)와 Engdahl and Vallduví (1996)의 정보포장이론은 의사소통에서 이루어지는 청?화자의 인지적 과정을 다루고 있다. 특히 청자가 화자의 발화 속에 담긴 정보를 어떻게 자신의 뇌 속에 저장된 정보에 적합하게 처리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Vallduví

and Engdahl는 Chafe(1976)가 언어 정보의 기본 구성 요소로 간주한 '화제(topic)'와 '초점(focus)'을 '연결성분(link)', '초점성분', '꼬리성분(tail)'의 세 성분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성분은 문장 정보 처리에 있어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 (4) 가. 연결 성분 - 문장의 정보가 수록되어야 할 서류카드를 지정해주는 안내 역할
 나. 초점 성분 - 청자의 서류카드에 첨가될 정보
 다. 꼬리 성분 - 청자의 서류카드에 수록된 정보 중 수정되거나 대체되어야 할 정보를 지정해주는 안내 역할

화자는 위의 세 성분을 이용하여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알맞은 정보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을 생성하며, 청자는 화자가 사용한 운율과 통사구조를 토대로 화자가 사용한 정보구조를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게 된다. '연결' 성분은 문장의 정보가 기록될 장소를 지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두 문장간의 연관성만이 아니라 명사간의 조응관계를 설명하는 열쇠가 된다. 연결성분이 있는 문장이나 절의 정보는 그 연결 성분인 지시적 표현이 지정하는 서류카드에 기록이 된다. 반면 연결 성분이 나타나지 않은 문장이나 절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그 문장이나 절의 주어 자리에 위치한 지시적 표현이 지정하는 서류카드에 기록이 되는데, 이 서류카드는 많은 경우 앞 문장이나 절의 정보가 처리된 서류카드와 일치한다. 이때, 정보를 기록할 서류카드를 지정하는 지시적 표현과 지정된 서류카드의 주소에 해당하는 개체의 이름 사이에 조응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아래의 예문은 대명사가 문장의 정보구조에 따라 다른 조응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 (5) 가. [L Sue] [F insulted CATHY] and then [F (she) HIT (her)].
 나. [L Sue] [F insulted CATHY] and then [L she] [F hit HER].

1. 'A student of 10'의 '10'이 a student of physics에서처럼 교과나 연구 분야의 한 분야라면, 혹은 반이나 학교 이름이라면 'a student of 10'은 유의미한 표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 한 경우에는 '10' 뒤에 영형조응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우도 본 논문에서 다루는 문맥과 적합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으나, 본 논문의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Vallduví 1994:15)

위 두 예문에서 (5가)는 두 번째 절이 연결성분 없이 초점 성분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나)는 두 번째 절이 연결성분과 초점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대명사 'she'가 (5가)에서는 초점의 부분으로 나타나는 반면, (5나)에서는 연결 성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과로, (5가)에서 둘째 절의 정보는 첫째 절과 마찬가지로 Sue를 위한 서류카드에 기록되는 반면, (5나)의 둘째 절의 정보는 첫째 절과는 달리 Cathy를 위한 서류카드에 기록된다. 이는 (5가)에서 'Sue'와 'she'가 조응관계를 이루는 반면, (5나)에서는 'Cathy'와 'she'가 조응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지시적 표현이 두 개 이상 나타나는 문장의 경우, 문장 정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결 성분에 위치한 지시적 표현의 서류카드에 기록이 되지만, 그렇다고 다른 성분이나 그 성분의 일부분으로 나타나는 지시적 표현을 위한 서류카드에 아무 내용도 기록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로써, 위 (5가)의 경우 문장 정보가 우선적으로 Sue의 서류카드에 기록이 되는 반면, Cathy의 서류카드에는 (편의상 Sue의 서류카드 번호를 '50'이라 할 때) '→50' 처럼 Sue의 카드에 하이퍼 연결표시를 설정하여, Sue의 서류카드를 보면 Cathy와 Sue 사이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와 관련된 서류카드 작성은 아래 (8)과 (9)를 참조할 수 있다.² 한 문장의 정보 구조가 연결성분 없이 초점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그 문장의 정보가 앞 문장의 정보가 수록된 서류카드에 기록되는 것만은 아니다. 아래의 '사건-보고문(Event-reporting sentences)'과 같이 초점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의 주어가 앞 문장의 주어와 다를 때에는 새로운 서류카드를 생성하여 정보를 기록하게 된다.

(6) 가. Why don't you go to the theater more often?

나. Tickets are expensive.

나'. [F TICKETS are expensive].

(Vallduví 1994:16)

Vallduví 에 따르면, (6나)는 비록 초점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정보는 선행문장의 정보가 기록된 서류카드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한다. 그 이유는 주어 'Tickets'이 선행문장의 주어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Vallduví 는 Kuno(1972)를 따라 위의 'Tickets'은 어느 특정한 개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보며, 이에 대한 정보는 임시적으로 생성되는 새로운 서류카드에 기록된다고 한다. 반면, 꼬리 성분은 청자가 주어진 문장의 정보를 연결 성분에 의해 활성화된 서류카드에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7) 가. The boss [F hates Bill].

나. The boss [F HATES] [T Bill].

(7가)의 정보구조는 연결성분-초점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나)는 연결성분-초점성분-꼬리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Vallduví (1994)에 따르면, 화자는 청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 상태에 따라 (7가)와 (7나)를 선별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가령, 청자가 사장이 Bill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으나 그 감정이 어떠한 감정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나 사장이 Bill을 좋아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을 경우에, 화자는 (7나)를 말함으로써 사장의 Bill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반면, 청자가 사장이 Bill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에는 화자는 (7가)를 말함

2. 정보포장이론에 사용되는 서류카드는 Heim(1982)의 파일변환의미론(File Change Semantics)의 서류철과 같이 담화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저장하는 인간의 뇌속의 작은 공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Vallduví 는 Heim과 달리 문장의 정보를 연결성분에 의해 지정되는 서류카드에만 기록하고 문장에 나오는 다른 논항을 위한 서류카드에는 기록하지 않고, 단지 연결표시를 한다. Vallduví 는 이러한 연결방식이 Heim(1982)의 서류변환의 미론에서처럼 한 문장의 정보를 관련된 모든 서류카드에 기록하여야 하는 것보다 보다 경제적이며 덜 불편하다고 한다.

으로써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청자의 정보 인지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8) 가. (7가)를 듣기 전의 청자의 정보 상태

10 boss(10)	12 boss(12)
----------------	----------------

나. (7가)를 들은 후의 청자의 정보 상태

10 boss(10) hates 12 (10)	12 Bill (10) ↔ 10
---------------------------------	-------------------------

(9) 가. (7나)를 듣기 전의 청자의 정보 상태

10 boss(10) ____ 12 (10)	12 Bill (10) ↔ 10
--------------------------------	-------------------------

나. (7나)를 들은 후의 청자의 정보 상태

10 boss (10) hates 12 (10)	12 Bill (12) ↔ 10
----------------------------------	-------------------------

위의 서류카드에서 '10'이나 '12'는 임의적인 번호로써 단지 담화에 등장하는 개체들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는 서류카드 번호이다. '↔10'은 12번 카드가 내용상 10번의 카드와 연결(link)되어 있음을 보인다. 위에서 보듯, 꼬리 성분은 청자에게 다음과 같이 명제의 정보를 처리하라는 힌트가 되는 것이다.

(7) 가. '당신의 지식저장소에 있는 사장의 서류카드에 "hates Bill (the boss)"라는 정보를 기록하십시오.'

나. '당신의 지식저장소에 있는 사장의 서류카드에 있는 "____ Bill (the boss)"라는 정보의 "____"를 "hates"로 대체하십시오.'

즉, 청자는 꼬리 성분이 없는 (7가)를 들었을 때는 단순히 사장의 서류카드인 10번 카드를 열고 그 카드에 'hates Bill'에 해당하는 'hates (12)'라는 정보를 기록하고 Bill의 카드인 12번 카드에 10번 카드와의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는 반면, 꼬리 성분이 있는 (7나)를 들었을 때는 사장의 서류카드인 10번 카드를 열고서 그 카드에 이미 수록되어있는 '____ (12)'를 찾아 그 빈자리를 'hates'라는 정보로 대체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하였듯이, Vallduví (1994)와 Engdahl and Vallduví (1996)의 정보포장이론에서 문장의 정보구조는 새로운 정보가 무엇이며, 그 새로운 정보가 어떻게 청자의 지식에 기여하는지를 말해주는 안내서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점성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정보가 기록될 서류카드 지정은 연결성분이나 초점성분의 주어 자리에 나타나는 지시적 표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를 기록할 서류카드를 지정하는 지시적 표현과 지정된 서류카드의 주소에 해당하는 개체의 이름 사이에 성립하는 조응관계를 다룰 것이다. 특히 서류카드를 지정하는 지시적표현이 대명사인 경우에 초점을 맞춘다.

3. 문맥의 역할

전항에서 살펴보았듯이, Engdahl and Vallduví의 정보포장이론에서 새로운 문장의 정

보가 기록되어야 할 서류카드 지정은 주로 연결성분으로 나타난 지시적표현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문장이 초점성분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어자리에 위치한 지시적표현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정보포장이론에서 서류카드 지정은 지시적표현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지시적표현이 아닌 일반술어나 문맥이 정보가 기록될 서류카드를 지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거의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연결성분의 지시적표현이나 초점성분의 주어만을 고려하여 정보가 기록되어야 할 서류카드를 지정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은 여러 예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예로써, 한 식당에서 두 종업원간에 이루어진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10) 가. A: Where is the sweet and sour pork sitting?
나. B: She is sitting at Table No. 3.

(10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종업원 B가 자신의 뇌 속에 있는 관련 서류카드를 활성화려고 할 때, 연결성분만을 고려하고 문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는 적절한 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종업원 A가 'sweet and sour pork'란 요리자체를 의도한 것인지, 주문에 맞추어 준비된 요리를 의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상을 의도하는 것인지를 확실할 수 없어, 자신의 뇌 속에 있는 요리 자체로서의 'sweet and sour pork'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서류카드와, 손님에게 주기위해 만들어진 'sweet and sour pork'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서류카드 등 여러카드 중 어느 서류카드의 정보를 주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연결성분이 아닌 'sitting'과 같이 문장의 다른 부분을 고려한다면, 종업원 A의 발화에서 'the sweet and sour pork'가 탕수육을 주문한 사람을 지시한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탕수육을 주문한 손님의 서류카드를 활성화하여, (10나)와 같이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자가 화자가 의도한 조음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화자의 발화에 나타난 연결성분이나 초점성분의 주어 외에 문장의 다른 부분을 고려하여야 함은 아래의 예문에서도 나타난다.

- (11) 가. My brother and I met Susan on the way to the museum. We invited her to join us.
나. My brother and I met Susan on the way to the museum. We had lunch together at Joyce's and talked about her new job.

(11가)나 (11나) 모두 대명사 'we'가 주어로 나타난다. 하지만 (11가)의 we는 화자 자신과 화자의 동생만을 가리키는 반면, (11나)의 'we'는 화자와, 화자의 동생 그리고 Susan을 모두 가리킨다. 이 조음관계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술부에 나타나는 'her'와 'together'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화자의 발화에 나타나는 조음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발화의 정보를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Matsui(1993) 등 많은 화용론 문헌에서 지적하였듯이, Sperber and Wilson(1986)의 적합성과 같은 개념을 이용하여 문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12) 가. I moved from Boston to Chicago three years ago. The rent was expensive.
나. I moved from Boston to Chicago three years ago. The rent was cheap.

위 두 예문은 통사구조나 운율구조 같다. 단지 두 번째 문장의 술어만이 서로 다를 뿐이다. 하지만, 이 술어의 차이점은 문장의 주어인 the rent의 해석의 차이를 가져온다. (12가)에서 the rent는 Boston의 집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Chicago의 집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반면, (12나)의 the rent는 Chicago의 집세로만 해석이 된다. 즉, (12가)는 보스턴에서 시카고로 이사를 가보니 집세가 비쌌다는 해석과, 또한 보스턴에서 시카고로 이사가간 이유가 보스턴 집세가 비쌌기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반면, (12나)는 보스턴에서 시카고로 이사를 가보니 집세가 싸다 또는 시카고 집세가 싸서 보스턴에서 시카고로 이사를 갔다는 해석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정소우(1999)에서 논의하였듯이 단순히 초점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문장의 주어만을 고려하는 Engdahl and Vallduví의 정보포장이론에 제시된 기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이 익환이민

행(1998)의 확대포장이론에 제안된 프레임(frame) 개념을 이용한 슬롯카드와의 하이퍼링크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 두 예문의 해석의 차이는 ‘expensive’와 ‘cheap’이라는 술어뿐만 아니라 이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생활지식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 세상지식 서류카드와 순행 조응어 해석

4.1 어휘 서류카드 구조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발화에 나타나는 조응관계를 화자의 의도에 맞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자는 연결성분 외에 술부와 전후 문맥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지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정보포장이론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담화 참여자들의 지식저장소에는 세상지식을 기록한 서류카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담화 참여자들이 발화의 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된 세상지식을 기록한 서류카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여야 한다. 본 항과 다음 항에서는 이러한 가정하에서, 어휘 정보나 세상지식이 기록된 서류카드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이를 활용한 조응해석 규칙을 살펴보도록 한다. 정보 처리에 필요한 세상지식으로는 정소우(1999)에서 논의하였듯이 언어에 대한 문법 지식도 포함될 것이다. 여기서 문법지식이란 음성음운론적인 지식은 물론, 어휘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지식, 능동태와 수동태간의 상관관계와 같은 통사적 지식 등 언어학에서 일반적으로 언어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언어지식을 말한다.³ 본 항에서는 이러한 문법 지식 중 어휘의 정보가 기록되어있는 서류카드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머리말에서 소개된 (3)의 예문을 살펴보자. 논의의 편의상 아래와 같이 대화의 형식으로 살펴본다.

(13) 가. A: She is a mother of 9 ∅.

나. B: Wow, that many.

(14) 가. A: She was not so young as I expected and in appearance imposing rather than attractive. She was in fact a woman of 40 ∅.

나. B: Hmm, so you didn't want to meet her again.

3. Dekker and Henderiks(1994)가 아래의 예문에서 A가 Vallduví의 정보포장이론에 제시된 인지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B의 발화를 정보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i) (A가 누군가에게서 “Kasparov beat Karpov in Linares”라는 말을 듣고 Kasparov를 위한 서류카드 2번에 ‘beat(1)(2)’를 기록하고 Karpov를 위한 서류카드 1번에 ‘→2’를 기록한 후, 친구 B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한다.) A: Karpov was beaten by Kasparov, so he may also be beaten by Timman. B: I hate to spoil the fun, but [L Karpov] was [F not] beaten by Kasparov. (Dekker and Henderiks 1994:25)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보포장이론에서는 한 문장에 포리성분과 초점성분이 모두 있으면, 청자는 활성화된 서류카드에서 방금 입력된 포리성분과 같은 기록을 찾아 초점성분에 나타난 새로운 정보에 맞게 갱신하여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B의 말을 들은 A는 Karpov를 위한 1번 서류카드에서 ‘not-beaten-by(2)(1)’라 조건이 대체 할 ‘beaten-by(2)(1)’ 조건을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1번 서류카드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A는 B의 발화를 정보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담화의 참여자들이 정보처리시 문법지식의 서류카드를 활성화한다고 가정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A의 발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의 정보를 그와 관련된 모든 개체의 서류카드에 기록하는 Heim(1982)의 복수 정보 처리(multiple update) 방식을 지양하고, 문장 구성성분 중 연결성분으로 나타난 개체의 서류카드에만 그 정보를 기록하고 다른 개체와의 관계는 ‘→2’와 같은 하이퍼링크하는 Vallduví의 정보포장이론에서 판단 할 때, A가 1번 서류카드에 명시된 연결표시 ‘→2’를 보고 2번 서류카드를 열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beat(1)(2)’를 이용해 ‘Karpov was beaten by Kasparov’를 발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한 서류카드에 기록된 정보가 그 형태를 달리하여 그 카드와 연결된 다른 서류카드로 이전 또는 복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는 한 서류카드에 기록된 정보를 추출할 때, 그 카드가 지시하는 개체를 주어로 문장을 구성하지 않고, 그 정보에 연결된 다른 서류카드에 의해 지시되는 개체를 주어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능동태 형태로 입력된 정보를 저장하였다가 경우에 따라서 수동태의 형식으로 전환하여 추출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A는 능동태 문장 ‘Kasparov beat Karpov in Linares.’에서 얻은 정보를 후에 ‘Karpov was beaten by Kasparov.’라는 수동태 문장으로 발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화자가 능동태 형태로 입력된 정보를 수동태의 정보로 전환하여 발화할 수 있다면, 이는 곧 저장할 때도 수동태의 정보를 능동태의 정보와 비교하여 대체, 수정하여 저장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5) 가. A: She is a student of 10 ∅.
나. B: What?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세 예제의 (가)에는 일반명사와 'of' 그리고 수와 영형대명사로 이루어진 명사적 술어가 들어 있다. 하지만 그 뜻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13가)에서 '9'는 '아홉명의 자녀'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며, (14가)에서 '40'은 '마흔 살'로 해석이 된다. 그리고 (15가)의 '10'은 어떠한 해석도 부여받지 못하며, 오히려 문장 전체가 이상한 문장으로 분류된다. 즉, (13가)의 영형조음어는 'children'을, (14가)의 영형조음어는 'years'를 가리키는 반면, (15가)의 영형조음어는 무엇을 가리키는 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위 세 담화의 어느 부분에도 영형조음어의 선행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세 영형조음어가 달리 해석되는 것은 생성의미론에서 주장되었듯이 우리가 mother, woman, 그리고 student의 의미를 의미 자질들의 집합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러한 어휘지식을 담화의 정보를 처리할 때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가령, mother의 의미는 [+female, +having children, ...] 등의 의미 자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의미 자질들 중 '9'라는 수와 가장 적합하게 어울릴 수 있는 의미 자질은 [+having children]이다. 그리고, woman의 의미는 [+female, +human, +over 18 years, ...] 등의 의미 자질들로 구성되며, 이 자질들 중 '40'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자질은 [+over 18 years]가 된다.⁴ 그래서 'a mother of 9'와 'a woman of 40'는 각각 자녀가 아홉인 어머니와 마흔 살의 여인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다. 반면, student의 의미를 이루는 [+human, +studying ...] 등의 의미 자질들 중에는 '10'이라는 수와 어울릴 수 있는 자질이 없기 때문에, 'a student of 10'은 이상한 표현이 되는 것이다.⁵ 위 조음관계는 이 익환·이민행(1998)의 확대정보포장이론에 제시된 프레임 개념을 이용한 슬롯카드 연결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차이점은 위에 설명된 조음관계는 mother라는 표현의 의미의 (언어표현으로 실현되지 않은) 일부를 영형조음어가 지시하는 것인 반면 확대정보포장이론의 슬롯카드 연결은 언어표현으로 실현된 프레임의 요소를 프레임과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달리 말한다면, 슬롯 연결은 담화에 언어표현으로 실현된 조음어적인 표현에 의해 새로이 활성화된 슬롯 카드와 이미 활성화된 프레임 기능을 가진 서류카드사이에 하이퍼링크를 설정하여 조음관계를 나타내지만, mother of 9 ∅는 조음어와 선행사가 모두 담화에 문자 표현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영형) 조음어를 수식하는 9라는 수와 mother의 의미 자질들 중 서로 가장 적합하게 연관을 맺을 수 있는 자질을 찾아 영형 조음어의 선행 사로써 설정하는 것이다. 혹자는 a mother of 9의 경우도 프레임의 개념을 이용하여 children이 mother라는 프레임의 일부로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 children과 영형조음어 사이에 조음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a woman of 40 ∅의 영형 조음어가 woman의 의미 자질 요소인 years를 선행사로 취하는 조음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슬롯카드 연결의 개념으로 영형 조음어와 years의 조음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woman이라는 표현이 프레임 역할을 하고 years가 슬롯카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이같은 프레임 구조 설정은 우리의 직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담화 참여자들이 발화에 나타난 조음관계를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화에 나타난 표현들의 의미가 의미자질로 기록된 서류카드를 참조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위의 논의를 토대로 청자가 (13가)의 발화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 과정 중 활성화 되는 어휘 서류카드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되어있다고 본다.

4. Cambridge International Dictionary of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년 출판)는 'woman'을 'adult female human being'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adult'란 자질대신에 [+over 18 years]란 자질을 사용한다. 물론 'adult'의 범주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 연령은 담화 참여자들이 속한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로써, 영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인간을 성인으로 간주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경우에 따라 만 18세 혹은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성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5. [+human]이란 의미 자질이 숫자 '10'과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으나 이 자질은 a student이란 하나의 개체에 대한 내재적 속성으로 복수 개념과 어울리지 않는다.

(16) 가

mother
+female
+having children

나.

woman
+human
+female
+over 18 years

다.

student
+human
+study —

위의 서류카드는 (8)에 소개된 서류카드와 다른 구조를 이루고 있다. (8)의 서류 카드에는 번호와 그 번호를 논항으로 하는 여러 조건들이 있는 반면 위의 서류카드에는 그러한 번호와 조건들이 없다. 그 차이는 (8)의 서류카드와 같이 지시적 표현에 의해 소개된 특정한 개체를 위한 서류카드와 위의 서류카드와 같이 어느 특정한 개체가 아닌 일반 어휘를 위한 서류카드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16다)의 student 어휘 서류카드에 기록된 '+study —'의 '—'는 공부의 대상이 기록될 자리이나, 단순히 student이란 표현만으로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빈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휘 서류카드에 수록되는 정보에는 언어 사용자 모두가 공유하는 정보도 있을 것이며 개인에 따라 다른 정보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언어 사용자들이 사전을 보고 어휘 의미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습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뇌에 수록된 어휘의 의미에 그 개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의미가 가미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람들은 같은 표현을 접하고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예로써, 위에서 언급한 mother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female, having children이란 객관적인 의미를 떠올리지만, 개인의 경험에 따라 mother라는 존재에 대해 떠올리는 감정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mother라는 표현을 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좋은 느낌을 받는 반면, 자신의 어머니에게 많은 학대를 받아 온 사람들은 나쁜 느낌을 받을 것이다. 비슷한 예로써, 'Jane is a cat'이란 문장을 접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고양이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에 따라 형성된 느낌을 Jane과 연결한다. 그래서, 듣는 이의 경험에 따라 형성된 cat의 어휘 서류카드에 수록된 정보에 따라서, Jane을 귀여운 여인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반면, Jane을 교활한 여인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과거의 경험을 통한 사물에 대한 감정이 같은 종류의 사물이 포함된 문장 해석에 적용이 된다는 것은 한 특정 개체에게서 얻은 감정이 같은 종류의 다른 개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화되어 언어 사용자의 뇌에 저장된다는 것을 뜻한다. 가령, John이 고양이들과의 나쁜 경험으로 인해 고양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반면 Tom은 좋은 경험을 통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면 이 두 사람의 고양이 어휘 서류 카드는 각각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17) 가. John의 고양이 서류카드

cat
+animal
...
+wicked

나. Tom의 고양이 서류카드

cat
+animal
...
+cute

세상 지식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지식 저장소에 저장되는 이러한 어휘 서류카드만이 아니라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얻는 이른바 상식을 기록하는 서류카드도 있다. 예로써 앞에서 논의한 이사와 관련된 상식 서류카드가 이에 해당한다. 학습이나 여러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moving이란 서류카드를 설정하고 이에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여 둔다고 할 수 있다. 이 moving이란 서류카드에 기록되는 정보로서는 장소 이동, 이사의 원인에 따른 이사 형태 등에 대한 정보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보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4.2 다리현상과 순행조응어 해석

청자가 발화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서류카드를 올바르게 활성화하는데 있어 정보 구조만이 아니라 조응어의 의미자질과 선행사로써 가능한 표현들의 의미자질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은 여러 예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먼저 Kubon(1998)에 제시된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18) The boss got broccoli for Christmas. His wife had to eat it all. [F He HATES] [T broccoli].
(Kubon 1998: 40)

Kubon이 지적하였듯이, 주어가 초점 성분 속하는 문장의 정보는 선행 문장의 정보로 기록된 서류카드에 기록된다는 Vallduví의 주장을 따라, 청자가 정보 구조에 따라 위 발화의 세 번째 문장의 정보를 기록한다면 그 정보는 선행 문장의 정보가 기록된 'his wife' 즉 사장 부인의 서류카드에 기록되는 오류가 생긴다. 하지만, 청자가 정보 구조만이 아니라 조응어의 의미자질과 정보를 기록할 서류카드의 주소에 해당하는 지시적 표현의 의미자질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의미자질로 기록된 어휘 서류카드 정보를 참고로하여, 청자는 'he'와 선행 문장의 정보가 기록된 서류카드의 주소인 'his wife'의 의미자질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파악하고는, 선행사로써 가능한 다른 표현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청자는 문맥상 'he'의 선행사로써 'the boss'가 적합함을 파악하고 세 번째 문장의 정보를 'the boss'의 서류카드에 기록할 수 있다. 청자가 발화의 정보 구조만이 아니라 어휘의 의미자질을 고려하여 발화 정보를 기록할 서류카드를 지정한다는 가정은, 청자가 필요한 경우 세상 지식이 기록된 프레임 서류카드를 활성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19) The bus came on time, but he didn't stop.

(19)의 발화를 들은 청자는 버스가 정시에 왔지만 버스 운전사가 차를 세우지 않았고 정보를 처리한다.⁶ 먼저 청자는 (19)의 첫 번째 절의 정보를 bus의 서류카드에 기록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절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자는 대명사 'he'의 선행사를 찾게 된다. 'he'가 버스 운전사를 지시한다고 파악한 청자는 버스 운전사의 서류카드를 새로이 생성하거나 기존의 서류카드를 활성화하여 두 번째 절의 정보를 기록하게 된다. 청자가 대명사 'he'를 버스 운전사로 인지하는 과정은 Yule(1996)의 설명처럼 버스에는 운전사가 있다는 추론을 포함한다. 이를 정보포장이론 틀로 표현하자면 앞에 언급된 이의환이민행(1998)의 프레임 이용한 슬롯연결 과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청자가 버스 운전사란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있지 않은 (19)에서 'he'의 선행사로 버스 운전사를 설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the bus'가 'he'의 선행사가 될 수 없다는 판단 행위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한 판단은 청자가 bus의 어휘 서류카드에 수록된 의미자질 중 [-human, -animate]이란 자질과 he의 의미자질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즉, 위의 조응관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청자는 인지과정 중 bus의 의미가 기록된 어휘 서류카드를 열어 그 곳에 기록된 의미자질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아래 예문을 비교해 볼 때 분명해진다.

- (20) The bus came on time, but it didn't stop.

위 (20)의 두 번째 절은 (19)의 두 번째 절과 같은 억양구조로 되어있다. 그러나 청자는 'it'의 선행사는 버스 운전사가 아닌 'the bus'라고 판단하고 관련 정보를 선행문장에서

6. 이 예문은 Yule(1996: 24)에서 인용한 예문으로 Yule의 설명은 본 논문의 내용과 다르다. Yule은 화자에 따라 'a bus has a driver'와 같은 추론은 너무나 자동적이어서 직접 대명사를 이용하여 조응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he'는 'the bus driver'가 아닌 'the bus'를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본 논문을 위한 설문 조사에 응한 여러 영어 모국어자들은 he가 the driver를 가리킨다고 답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he'가 'the bus'가 아닌 'the driver'와 조응관계를 설정한다고 간주하는 영어 모국어자들의 인지과정을 다룬다.

활성화된 'the bus'의 서류카드에 기록하게 된다. 그 이유는 청자가 버스 어휘 서류카드에 수록된 [-human, -animate]라는 자질과 대명사 it의 의미 자질이 서로 어울릴 수 있어, 'the bus'와 'it'이 적합한 조응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자는 (20)의 두 번째 절의 정보는 (19)의 두 번째 절과는 달리 bus의 서류카드에 기록하는 것이다. 위의 두 예제에서 청자가 주어진 담화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연결성분의 카드만 생성하고 활성화 한다고 가정한다면, (19)에서는 버스 운전사를 (20)에서는 버스를 대명사의 선행사로 취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반면, 청자가 담화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어휘 서류카드를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열어 볼 수 있으며, 이에 수록된 정보를 조응어 해석을 위해 참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위의 두 예제에서 보이는 청자의 조응관계 설정과 이에 따른 정보 기록을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프레임에 의한 슬롯카드 연결도 어휘 서류카드에 수록된 의미 자질 정보를 살펴 본 후 대명사의 선행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미 자질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21) 가. I bought a house. The kitchen is really big.
나. I bought a house. It is really big

(21가)의 발화를 들었을 때 청자는 화자가 구입한 집의 부엌이 크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를 확대정보포장이론에서는 프레임에 의거한 슬롯카드 연결 작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21나)의 발화를 들은 청자는 단순히 화자가 구입한 집이 크다고 생각할 뿐, 그 집의 부엌이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21나)의 두 번째 문장의 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슬롯카드 연결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문장의 정보는 단순히 선행문장에서 생성된 'a house'의 서류카드에 기록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21나)에서는 (19)의 예문에서처럼 프레임에 이용한 슬롯카드 연결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명사의 선행사를 파악하는 인지 과정 중, 관련된 어휘의 의미 자질간의 어울림을 먼저 살펴본 후, 대명사의 의미 자질과 어울리는 의미자질을 가진 표현이 선행 문장에 있으면 이 표현을 선행사로 설정하며, 그러한 표현이 선행 문장에 없을 때만이 프레임에 의거하여 선행사와의 조응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슬롯카드 연결을 설정하기 때문이라고 가정할 때만이 설명이 가능하다. 즉, (21나)의 대명사 'it'의 의미 자질과 어울릴 수 있는 [-animate, +singular]란 의미 자질을 가진 'a house'란 표현이 선행 문장에 있으므로 house의 프레임에 존재하는 kitchen을 선행사로 취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잠정적인 조응어 해석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22) 조응어 해석 규칙

- 가. 선행 문맥에서 조응어의 의미 자질과 어울릴 수 있는 의미 자질을 가진 표현 중 문맥에 적합한 선행사를 정한 후 그 선행사의 서류카드에 관련 정보를 기록한다.
나. (가)가 가능하지 않으면 문맥에 적합한 프레임에서 조응어 의미 자질과 어울릴 수 있는 의미 자질을 가진 표현 중 문맥에 적합한 선행사를 정한 후 그 선행사의 서류카드에 관련 정보를 기록한다.

4.3 프레임 서류카드

전항에 소개된 조응어 해석 규칙은 이익환·이민행(1998)의 확대정보포장이론에서 논의된 프레임 개념이 적용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아직 프레임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 본항에서는 확대정보포장이론과는 다른 프레임 구조를 가정하는데, 먼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확대정보포장이론의 프레임 구조와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 구조를 예문 (19)의 인지과정을 통해서 살펴본다.

(23) 가. 'The bus came on time'의 정보 처리

60
bus (60) came on time (60)

나. 'but he didn't stop'의 정보 처리

① 관련 어휘 카드 활성화와 의미 자질 비교

60 bus (60) came on time (60)	bus -animate +4 wheels ...	he +animate +male +singular
-------------------------------------	-------------------------------------	--------------------------------------

② 버스 프레임 활성화와 의미 자질 비교

60 bus(60) came on time(60)	bus frame +bus +bus driver +passengers ...	bus driver +human +animate operate buses ...	passenger +human +animate ...
he +animate +male +singular ...			

③ he의 선행사로써 가능한 driver와 passenger 중 적합성 개념을 이용하여 bus driver를 선행사로 선정

④ bus driver 카드 생성과 하이퍼링크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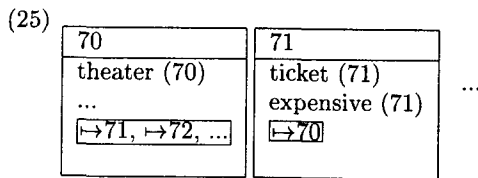
60 bus (60) came on time (60) ↳61	61 bus driver (61) didn't stop 60 (61)
--	--

위의 도식에서 어휘 서류카드와 버스 프레임에 관련된 서류카드는 버스 서류카드와 버스운전사 서류카드와는 달리 두줄 상자로 표시하였다. 이것은 (19)의 발화에 명시적으로 나타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생성 또는 활성화되는 서류카드와 조응관계를 처리하기 위해 활성화되는 세상지식 관련 서류카드를 구별하기 위함이다.⁷ 위의 도식에 보이는 프레임 활성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The bus came on time'의 정보를 처리한 청자는 대명사 'he'를 처리하기 위해, bus와 he의 어휘 서류카드를 활성화하여 기록된 정보를 통해 'the bus'가 대명사 'he'의 선행사로써 적합한 지를 살펴본다. 두 표현간의 조응관계가 적합 하지 않음을 인지한 청자는 bus와 he의 어휘 서류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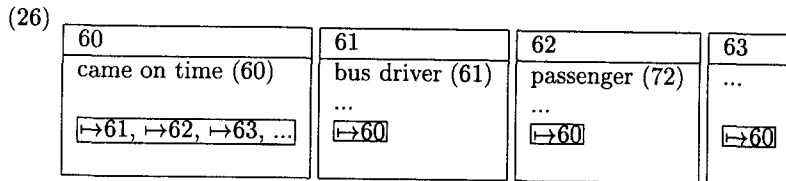
7. 담화 정보 처리에 있어서 담화에 명시된 정보와 명시된 정보간의 관련성 파악을 위한 추론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다른 기제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은 Sandt(1992) 등 여러 담화표상이론 문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예로써 Sandt는 담화에 명시된 정보는 실선의 담화표상으로, 추론과정에 필요한 정보는 점선의 담화표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로 점선 상자 대신에 두줄 상자를 사용한다.

를 비활성화한다. 이어 청자는 버스 프레임 서류카드를 활성화하여 선행사로서 적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를 살펴본다. 여러 요소 중 bus driver가 'he'와 적합한 조응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한 청자는 bus driver를 위한 61번 서류카드를 생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다. 이때 60번의 bus 서류카드와 61번의 bus driver 서류카드가 하이퍼링크되며, 버스 프레임 서류카드는 비활성화된다. 청자가 발화 정보를 적합하게 인지하기 위한 세상지식을 활용하는 과정도 위에 묘사된 버스 프레임 활용 과정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세상지식도 우리의 뇌속에 위의 버스프레임 서류카드처럼 많은 서류카드에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가 언어정보를 인지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카드를 활성화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위에 논의된 프레임 서류카드 구조와 확대정보포장이론의 프레임 서류카드 구조를 비교하여 보자. 이익환·이민행(1998) 확대정보포장이론에서는 프레임의 기능을 가진 서류카드는 하나 이상의 슬롯카드와 하이퍼 링크되어 있으며, 그 슬롯카드에는 해당 프레임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다. 예로써, Vallduvi와는 달리 담화 (6)의 'tickets'이 특정한 개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한 이익환·이민행은 발화 (6나)의 정보구조가 (6다)가 아닌 (24)이며, 그 정보는 (25)와 같이 기록된다고 제안한다.

(24) [L TICKETS][F are expensive]



즉, 청자는 'tickets'이란 표현을 듣고, 먼저 정보처리된 'the theater'의 서류카드에 하이퍼링크된 'ticket'의 서류카드 71번을 활성화하여 'expensive (71)'란 정보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70번 서류카드에 있는 '↔72, ...'는 ticket외에 theater 프레임에 구성하는 요소들을 위한 카드와의 하이퍼링크를 나타내는 것이다.⁸ 그러므로 확대정보포장이론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카드 구조를 따르면, (23나 ②)의 버스 프레임은 아래와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청자는 'the bus'와 'he'라는 두 표현 사이에 조응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는 버스 프레임으로 하이퍼링크된 여러 슬롯카드를 (26)과 같이 활성화하여 'he'의 선행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61번의 카드에 'didn't stop 60 (61)'라는 정보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결과는 위 (23)의 결과와 같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22)의 규칙은 이익환·이민행의 확대정보포장이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23)에 제시된 정보 처리 과정에서 확대정보포장이론과 다른 구조의 프레임 방식을 사용한 것은 경제성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 경제성은 청자가 (12)의 'the rent'를 인지하는 과정과 결부하여 살펴볼 수 있다. 편의상 예문 (12가)를 아래 반복한다.

8. 이익환·이민행(1998)에는 단지 ticket 서류카드만이 theater 서류카드와 하이퍼 링크 되어 있으나, theater 프레임에는 ticket외에 매표소, 매표점 등 여러 요소들이 있으므로, 프레임 기능을 가진 theater 서류카드를 70번의 카드처럼 묘사하였다.

(12) 가. I moved from Boston to Chicago three years ago. The rent was expensive.

청자가 확대정보포장이론의 프레임 구조를 적용하여 (12가)의 두 번째 문장의 the rent라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청자의 뇌 속에 rent라는 슬롯카드와 하이퍼링크된 프레임카드와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한다. 확대정보포장이론에서 프레임카드란 관련된 지시적 표현에 의하여 활성화된다. 그러므로, (12가)의 두 번째 문장의 의미가 Boston 집세가 비쌌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the rent란 슬롯카드와 하이퍼링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청자가 (12가)의 첫 번째 문장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활성화되는 Boston 서류카드가 이사와 관련된 프레임 카드 구조로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즉, Boston의 서류카드에 rent의 서류카드가 슬롯카드의 자격으로 하이퍼링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카드 설정과 슬롯카드의 설정은 큰 무리 없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필요이상으로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서류카드를 필요로 하게 된다. 예로써, 도시에는 이사가 아닌 여러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는 도시의 서류카드에 이러한 다양한 일들과 관련된 프레임에 속할 수 있는 수많은 슬롯카드들이 하이퍼링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즉, 위의 예문에서 Boston이란 도시의 서류카드가 활성화될 때, 이 카드에는 이 도시와 관련된 모든 프레임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의 정보가 들어있는 슬롯카드와 하이퍼링크되어 있다는 표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세상지식을 이루는 여러 지식의 프레임이, 전향에서 다루어진 어휘 서류카드처럼, 그 지식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서류카드로 작성되어 우리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고, 우리가 발화 정보를 처리할 때, 필요한 프레임 정보를 적합하게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보다 더 경제적으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로써, 먼저 청자가 (12가)의 첫 번째 문장의 정보를 처리할 때 활성화되는 Boston의 서류카드에는 이사와 관련된 프레임을 설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정보 처리할 때, the rent라는 서류카드를 생성한 청자는 이사와 관련된 프레임카드를 활성화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여러 정보 중에 도시와 집세에 관한 정보 사이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the rent가 Chicago나 Boston이란 도시 중 한 도시와 연결되어 처리되어야 함을 인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청자는 담화 전체 문맥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the rent의 서류카드를 Chicago의 서류카드 또는 Boston의 서류카드와 하이퍼링크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청자가 (12가)의 정보를 처리한다고 가정한다면, 위에 언급된 확대정보포장이론에서처럼 Boston의 서류카드에 필요 이상의 많은 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물론 서류카드의 구조가 복잡할 수 있다고 해서 확대정보포장이론의 프레임카드 구조가 잘못 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사실, 확대정보포장이론에 적합성을 도입하여, 프레임 기능을 가진 여러 서류카드 중 문맥에 적합한 프레임 서류카드만 활성화한다고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확대정보포장이론의 프레임 서류카드 설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레임 서류카드 설정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조응어 해석 규칙에 위에 논의된 두 프레임 서류카드 구조 중 어느 구조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4.4 역행 조응어와 미지정 서류카드

Vallduví (1990:68)는 개체의 지시적 특성이 정보처리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Heim(1982)을 따라 비한정명사구(an indefinite NP)는 새로운 서류카드를 생성하는 반면 한정명사구나 대명사는 이미 생성되어있는 서류카드의 활성화를 유발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1나)의 'it'과 같은 역행조응어는 이러한 가정을 따르지 않는다. 청자는 역행조응어를 접하게 되면 van Deemter(1990)과 Chung(1992)에서 주장되었듯이 뇌 속에 미결정 담화지시자를 설정하게 된다. 미결정 담화지시자 설정은 정보포장이론에서 새로운 서류카드의 생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역행조응어가 유발한 서류카드에는 필요한 하이퍼링크 표시와 조응어의 의미자질만이 기록될 것이다. 예로써, (1나)의 첫 번째 문장을 들은 청자는 아래와 같은 세계의 서류카드를 생성 또는 활성화하게 된다. (논의의 편의상 화자를 Sam이라 한다.)

(27)

31	32	33
Sam (31) turned 32 (31) almost stepped on 33 (31)	corner (32) ↳31	+singular ↳31

화자를 위한 31번의 서류카드와 한정표현 the corner를 위한 32번의 서류카드는 이미 청자의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던 카드가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역행 조응어를 위한 33번의 서류카드는 새로이 생성된 것이다. 물론 대명사 'it'을 'the corner'를 선행사로 취하는 순행조응어로 보지 않고, 역행조응어로 보는 것은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세상지식에 근거한 적합성 고려에 따른 것이다. 모퉁이를 돌면서 모퉁이를 거의 밟을 뻔했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해석이기 때문에 청자는 'it'이 역행조응어임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위에 제시된 역행조응어 'it'의 서류카드인 33번의 서류카드에는 문장에 사용된 표현이 아닌 의미자질이 기록되어 있다. 이 구조는 담화지시자와 조건으로 이루어진 Sam의 서류카드인 31번의 카드의 구조와 다르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점은 역행조응어 처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어휘서류카드가 아닌 지시적표현에 의해 생성되는 서류카드에 의미자질이 있다는 것은 그 서류카드가 아직 그 지시대상이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은 조응어에 의해 생성된 서류카드임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지시대상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33번의 서류카드와 같은 서류카드를 미지정 서류카드라 명명한 것이다. 33번의 서류카드 구조와 31번의 서류카드 구조의 차이점이 서류카드의 구조적 통일성을 훼손할 수 있다하여, 33번의 서류카드에 아래와 같이 '+singular'란 의미자질 대신 'singular(33)'이라는 조건을 기록한다고 가정한다면 역행조응어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혼란도 가져올 수 있다.

(28)

33
singular (33) ↳31

그 원치 않는 혼란이란, 33번의 서류카드가 (1나)의 'I turned the corner and almost stepped on it'의 역행조응어 'it'이 아닌 'I turned the corner and almost stepped on a singular'의 'a singular'라는 표현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파악하게되는 혼란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역행조응어는 (27)에 제시된 33번의 서류카드와 같이 의미자질이 기록된 미지정 서류카드를 생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의미자질 대신에 단순히 'it'이라는 조응어 표현이 기록된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미지정 서류카드는 조응어의 지시 대상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종의 미완성 서류카드라고 할 수 있다. 미지정 서류카드는 담화가 진행되면서 적합한 선행사가 나타나면,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의미자질이나 조응어 표현이 선행사로 사용 되는 언어적 표현으로 대체됨으로써 일반 서류카드로 완성이 된다. 가령, (1나)의 두 번째 문장을 들은 청자는 'a large snake'란 표현이 'singular'란 의미 자질과 어울릴 수 있으며, 담화 전체 내용을 고려할 때 'it'의 선행사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되며, 이에 따라 33번의 카드를 다음과 같이 완성된 서류카드로 수정하게 된다. (편의상 the path의 서류카드 번호를 34라 한다.)

(29)

33
large snake (33) in the middle of 34 (33) ↳31, ↳34

역행조응어로 쓰인 대명사가 새로운 서류카드를 생성하는 것은 아래의 예문에서도 볼 수 있다.

- (30) He was a dream. He lived in dream. Martin Luther King was ...
(1992년 1월 19일 Seattle King 5 TV 9시 뉴스에서)

뉴스의 새로운 한 토막을 시작하는 대명사 'he'를 듣는 청자는 자신의 뇌속에 이미 저장된 서류카드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human, +male' 또는 'he'란 정보만이 기록된 새로운 미지정 서류카드를 생성하여 텔레비전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정보를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Martin Luther King이란 이름이 나왔을 때, 이미 생성된 미지정 서류카드에 그 이름을 기록하며 '+human, +male'란 기록을 지우게 된다. 본 항에서 논의한 역행조음어의 조음관계 인지과정을 전항에 제시된 조음어 해석 규칙에 반영하면 아래와 같다.

- (31) 조음어 해석 규칙

- 가. 선행 문맥에서 조음어의 의미 자질과 어울릴 수 있는 의미 자질을 가진 표현 중 문맥에 적합한 선행사를 정한 후 그 선행사의 서류카드에 관련 정보를 기록한다.
나. (가)가 가능하지 않으면 문맥에 적합한 프레임에서 조음어의 의미 자질과 어울릴 수 있는 의미 자질을 가진 표현 중 문맥에 적합한 선행사를 정한 후 그 선행사의 서류카드에 관련 정보를 기록한다.
다. (가)나 (나)가 가능하지 않으면 새로운 서류카드를 생성하여 후행 문맥에서 조음어의 의미 자질과 어울릴 수 있는 의미 자질을 가진 표현 중 문맥에 적합한 선행사를 정한 후 그 선행사의 서류카드에 관련 정보를 기록한다.

위에 제시된 조음어 해석 규칙은 본 논문에서 다룬 대부분의 조음관계를 문맥에 나타난 어휘 정보만을 고려하여 정보포장이론이란 형식화된 틀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예문 (12)의 경우, 위의 조음어 해석 규칙이 올바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맥에 나타난 어휘 정보 외에 주거 생활과 관련된 화자의 태도 등 여러 다른 정보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형식화할 수 있는지는 차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Vallduví (1994)와 Engdahl and Vallduví (1996)의 정보포장이론에서 청자가 발화의 정보를 화자의 의도와 부합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화의 정보 구조만이 아니라 어휘의 의미 자질 등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야 함을 여러 예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새로운 발화 정보를 기록할 서류카드를 지정하기 위해서, 청자는 먼저 화자가 의도한 조음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청자는 조음어와 선행사로서 가능한 표현의 의미 자질간의 양립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프레임 정보를 고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청자의 인지 과정을 정보포장이론이란 틀 안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의미 자질로 이루어진 어휘 서류카드를 설정하였으며, 확대정보포장이론에서 제시한 프레임 구조 보다 경제적인 프레임 구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음어 해석에 따른 서류카드 지정과 생성에 관한 규칙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존의 정보포장이론과는 달리, 언어 사용자들이 생활을 통해 얻은 정보를 기록하고 필요시 활성화할 수 있는 일반 어휘를 위한 서류카드 및 프레임 서류카드를 설정할 때, 언어 사용자들의 직관에 보다 더 부합되는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이익환·이민행. 1998. 지시적 표현과 정보구조의 해석을 위한 인지적 모형. 언어23.1: 65-85.
정소우. 1998. 기차표 예약 시스템 연구. 정국 외. 음성언어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한국어의 운율 구조 및 담화구조 연구, '98 장기기초연구 과제 최종보고서. 한국통신연구개발단, 77-91.
정소우. 1999. 정보포장 이론의 지식저장소 구조와 기능. 담화와 인지 6.1: 179-208.
Chafe, Wallace.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Charles N. Li ed., *Subject and Topic*, 25-55. New York: Associated Press.
Chung, So Woo. 1992. *Cataphora in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Ph. D. dissertation. U of Washington, Seattle.

- Dekker, Paul., and Herman Henderiks. 1994. "Files in Focus," in Elisabet Engdahl ed., *Integrating Information Structure into Constraint-Based and Categorical Approaches*. 29-37. HCRC Publications, University of Edinburgh.
- Engdahl, Elisabet., and Enric Vallduví . 1996. "Information Packaging in HPSG," in Claire Grover and Elisabet Vallduví ed., *Edinburgh Working Papers in Cognitive Science*, Vol. 12: 1-31.
- Heim, Irene. 1982. *The Sem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s*. Ph. D. dissertation. U. of Mass., Amherst.
- Kubon, Petr. 1998. "Information Repackaging," in Gosse Bouma, Geert-Jan Kruijff and Richard Oehrle ed., *Proceedings of FHCG '98*, 36-45.
- Kuno, Susumu. 1972.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Linguistic Inquiry*, 3:269-320.
- Matsui, Tomoko. 1993. "Bridging Reference and the Notions of 'Topic' and 'Focus'," *Lingua* 90: 49-68. North-Holland: Elsevier Science Publishers.
- Sandt, R. A. van der 1992. "Presupposition Projection as Anaphora Resolution," *Journal of Semantics*, 9:333-377.
- Sperber, Dan., and Deidre. Wilson.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 Vallduví , Enric. 1994. "The Dynamics of Information Packaging," in Elisabet Engdahl ed., *Integrating Information Structure into Constraint-Based and Categorical Approaches*, 4-26. University of Edinburgh: HCRC Publications.
- Van Deemter, C. 1990. "Forward References in Natural Language," ms. Institute for Perception Research Eindhoven.
- Yule, George. 1996.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접수일자: 2001년 10월 25일

게재결정: 2001년 12월 5일